

Dilemma

딜레마

시나리오 이강민

기획의도

다가오는 여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작품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도전하는 장르(공포/스릴러)인 만큼 진부하게 풀고 싶지 않았고, 고민 끝에 이전부터 함께 도전하고 싶었던 타임루프와 병합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귀신의 등장으로 주는 공포가 아닌, 일정한 시간 속에 갇혔을 때 오는 공포로 시작, 감동과 반전으로 끝맺을 수 있는 복합장르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등장인물

이하연 (여/21) 낙관적인 성격, 학교라는 타임루프 공간에 갇힌 여주인공.

김은우 (남/21) 비관적인 성격, 학교에서 마주하게 된 정체불명의 남주인공.

서다혜 (여/21) 이하연의 친구.

서재욱 (남/21) 은우를 괴롭혔던 학창 시절 일진.

최연아 (여/21) 서재욱의 친구.

시놉시스

야심한 시각, 과제가 들어있는 노트북을 찾기 위해 학교로 향하는 하연. 학교 안에 발을 들이는 이 순간, 너무 익숙한데... '과연 단순 데자뷰일까?' 엄습해 오는 기시감이 말해준다. '아니, 이건 절대 기분 탓이 아니야.' 일정한 시간 속에 갇혀버린 하연, 특정 행동을 반복하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필연적인 죽음을 맞이하며, 또다시 학교 안에 발을 들인다. 이를 인지한 순간, 등장하는 은우가 하연을 기다렸다는 듯 태연하게 큐브를 돌리고 있다.

"그 큐브는 언제까지 돌리고 있을 거야?"; "다 맞춰질 때까지.."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 같은 분위기 속, 알 수 없는 말들만 주고받는 둘. 둘의 만남으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과연.. 하연은 은우와 함께 죽음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S#1 대학 캠퍼스 내 길거리 - 야외/밤

밤 11시 50분, 음산한 캠퍼스 내 길거리에 서두르는 발소리(E).

과제 제출 마감까지 10분밖에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

하연은 친구(서다혜)와 전화하며 강의실에 두고 온 노트북을 찾기 위해 걸음을 옮긴다.

이하연 으아~ 진짜 싫다, 과제 하나 때문에 이게 뭐 고생이나
서다혜(F) 수업도 잘 안 나오는 애가 왜 갑자기 모범생인 척?
이하연 응 어쩔, 이번 학기는 진짜 과탑 먹을 거거든요~
서다혜(F) 내가 잘 못 들었나.. 뭐..? 과탑이요? 허, 그러기엔 이미..
이하연 아니, 것보다 여기 진짜 개 무섭다니까!
서다혜(F) 이 시간에 혼자 학교 다녀올 바엔 과제 하나 버리는 게 낫긴 하지
이하연 와~ 지일 아니라고, 제출만 하면 되는데 솔직히 이걸 너무 아깝잖아
서다혜(F) 그래도 나였음 절대 안 가, 그니까 가방을 잘 챙겼어야지!
이하연 아 몰라 짜증 나

S#2 학과 건물 1층 - 실내/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이하연 나 이제 학교 들어왔어
서다혜(F) 야, 서둘러 제출 12시까지잖아
이하연 (시간을 확인하며) 미친.. 5분 남았네?!
서다혜(F) 나는 잔다?
이하연 야.. 야! 잠깐만 학교 나갈 때까지만..
서다혜(F) 아니, 나 내일 오전 강의 있ㅇ.. (치지직)
이하연 여보세요? 야! 너 목소리가 끊겨

휴대폰이 갑자기 꺼진다. 전원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는데,

이하연 뭐야.. 설마, 배터리가 다 됐나?

문 잠기는 소리 철컹!(E)

이하연 까악! 깜짝아..

문을 열어보려 하지만 열리지 않는데,

이하연 오늘 왜 이래 진짜..! 하.. 일단 과제부터 제출하고 생각하자

S#3 교양 강의실 앞 복도 - 실내/밤

하연이 계단을 올라 숨을 고르고 강의실로 향한다.

알 수 없는 형체가 복도를 걷고 있는 하연의 뒤로 스치듯 지나가는데
하연은 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S#4 교양 강의실 안

가방을 찾아 급하게 노트북을 꺼내고 네이버에 로그인한 뒤,
과제가 첨부된 메일을 보내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 12시 정각이다.

이하연 휴.. 다행이다

가방을 챙겨 강의실 문을 나오자 처음 상황으로 돌아온다. (제로 컷)

S#5 대학 캠퍼스 내 길거리 - 야외/밤

(제로 컷) 전화를 하며 걷는 하연.

이하연 으아~ 진짜 싫다, 과제 하나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냐
서다혜(F) 수업도 잘 안 나오는 애가 왜 갑자기 모범생인 척?
이하연 아니, 것보다 여기 진짜 개 무섭다니까!
서다혜(F) 이 시간에 혼자 학교 다녀올 바엔 과제 하나 버리는 게 낫긴 하지
이하연 와~ 지일 아니라고 잠시만.. 근데 나 과제 제출했지 않아?
서다혜(F) 뭐래 술 먹었냐? 했으면 학교는 왜 갔는데 멍청아
이하연 하하 그러게.. 빨리 가야겠다

S#6 학과 건물 1층 - 실내/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이하연 나 이제 학교 들어왔어
서다혜(F) 야, 서둘러 제출 12시까지잖아
이하연 (시간을 확인하며) 미친.. 5분 남았네?!
서다혜(F) 나는 잔다?
이하연 맞다 너 내일 오전 강의였지? 그래 얼른 자라
서다혜(F) 뭐야 오전 강의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말했었나.. (치지직)
이하연 여보세요?

꺼진 휴대폰을 확인하고 멍 때리는 하연, 문 잠기는 소리 철컹!(E)

놀라서 몸이 들썩이지만 비명은 지르지 않는다.

이하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뭐지.. 기분 탓인가..

문을 열어보려다 잠겨있다는 걸 이미 아는 듯 그만둔다.

이하연 일단 과제부터..

(CUT TO) 과제 제출을 마치고 내려오는 하연.

이하연 분명 제출했던 거 같은데.. 문은 열렸으려나

입구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목덜미를 잡혀 끌려간다.

이하연 험!

맥없이 쓰러지는 하연의 목을 누군가 조르는데,

의식이 희미해지는 하연의 눈(ECU) - 매치 컷, 처음으로

S#7 대학 캠퍼스 내 길거리 - 야외/밤

매치 컷 - 하연의 눈(ECU)

서다혜(F) 수업도 잘 안 나오는 애가 왜 갑자기 모범생인 척?

이하연 (말을 끊으며) 아니, 잠시만 여기 뭔가 이상해

서다혜(F) 뭐가? 우리 학교? 지잡대가 멀쩡하면 그게 더 이상 하지 않냐?

이하연 그게 아니라..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과제 제출까지 8분이 남았다.

이하연 8분이나 남았어..

서다혜(F) 뭐가? 과제 제출이? 그래도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야?

이하연 맞아.. 서둘러야지

S#8 학과 건물 1층 - 실내/밤

문을 열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데,

서다혜(F) 아니, 왜 그러는데

이하연 일단 전화 끊지 말아 봐

서다혜(F) 나 빨리 자야 돼 내일 오전 강ㅇ.. (치지직)

휴대폰이 꺼지자 어김없이 들리는 문 잠기는 소리 철컹!(E).

이를 무시하고, 강의실을 향해 뛰기 시작하는 하연.

S#9 교양 강의실 안 - 실내/밤

과제를 제출하고 시간을 확인하니 11시 58분이다.

이하연 12시가 아니잖아..? 다행인 건가..?

이하연(N) 묘한 기시감, 계속 겪다 보니 알겠다. (가방을 챙긴다.)

이건 분명, 단순한 데자뷰 같은 게 아니란 걸 (강의실을 나간다.)

S#10 계단 - 실내/밤

이하연(N) 이를 자각했을 때 사소한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계단을 내려간다.)

S#11 학과 건물 1층 - 실내/밤

이하연(N)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건 (멈춰서 입구를 바라본다.)

입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하연,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보지만 굳게 잠겨 있다.

이하연 밖에 누구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결국 누군가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한다.

이하연(N) 나는 결국 죽는다. (F.O)

암전 상태에서 들리는 친구(서다혜) 목소리

서다혜 야.. 야!

S#12 교양 강의실 안 - 실내/낮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는,

이하연 헉!

서다혜 언제까지 잘 거야 빨리 가자

이하연 아 뭐야.. 다 꿈이었어..?

서다혜 뭐라고 구시렁대는 거야

이하연 (다혜를 끌어안으며) 나 너무 무서웠어..

서다혜 (하연을 밀어내며) 징그럽게 왜 이래!! 빨리 가방이나 챙겨

이하연 가방? 맞아 가방만 잘 챙겼으면..

하연이 가방을 잡으려고 하자 머릿속에서 “안 돼!”라고 누군가 소리친다.

이하연 (머리를 부여잡고) 옥..

서다혜 왜 그래?! 어디 아파?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점점 선명하게 들려온다.

김은우(V.O) 왜.. 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거야!! (괴롭힘 당하는 은우)

 너도 결국에 날 포기할 거야 (은우 곁을 떠나는 친구의 뒷모습)

 난 계속 혼자였고.. (밧줄을 들고가는 은우)

이하연(V.O) 아니야...

김은우(V.O) 앞으로도 혼자일 거야.. 평생 (밧줄에 목을 매다는 은우)

이하연 아니야...!!

서다혜 뭐가..?

이하연 다혜야.. 미안해, 잠시만!

하연이 들었던 가방을 내려놓고 강의실을 뛰쳐나간다.

서다혜 야! 어디 가!!

S#13 교양 강의실 앞 복도 - 실내/낮

큐브 돌아가는 소리 속.. 속..(E).

뛰어가는,

이하연 어디지..

큐브 돌아가는 소리 속.. 속..(E).

뛰어가는,

이하연 어디야!

S#14 3층 엘리베이터 앞 의자 - 실내/밤

엘리베이터 앞 의자에 덩그러니 앉아 큐브를 맞추고 있는 은우를 발견한다.

이하연 너 누구야

김은우 나..? 나는.. 은우, 김은우

이하연 이름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어째서!

김은우 (말을 끊고) 너는?

이하연 나..? 나는 이.. 하연

김은우 푼! 하하하
 이하연 왜 웃는 거야 기분 나쁘게
 김은우 웃기잖아 다짜고짜 하는 이 어색한 통성명 자체가
 이하연 그건 네가..
 김은우 이미 알고 있었어 네 이름
 이하연 어떻게?
 김은우 그야.. 네가 알려줬으니까
 이하연 내가?
 김은우 애초에 난 너를 처음 본 게 아니라서
 이하연(V.O) 저는 하연이에요 이하연 혹시.. 이름이?
 이하연 어쨌든.. 내가 궁금한 건 이름이 아니라 내가 꾸 꿈
 김은우 꿈?
 이하연 그래 그 이상한 꿈
 김은우 왜 그게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하연 그게 무슨 말이야 꿈이 아님 뭔데?!
 김은우 글썄.. 이번에는 꼭 나를 기억하면 좋겠네
 이하연 야.. 야!!

S#15 교양 강의실 안 - 실내/밤

엎드려 있던 하연이 서서히 눈을 뜬다.

노트북을 확인해 보니 시간은 이미 자정(12시)을 훨씬 넘긴 뒤였다.

머리에서 울리는 멍멍한 은우 목소리가 가방을 챙기려던 하연의 손을 멈춘다.

이하연 : (나지막하게) 기억났어.. 여기부터구나

가방을 챙기지 않은 채 강의실을 나간다.

S#16 교양 강의실 앞 복도 - 실내/밤

큐브를 맞추고 있는 은우가 있다.

이하연 저기.. 김은우..?

김은우 드디어 기억하는구나

이하연 (큐브를 보며) 그 큐브는 언제까지 돌리고 있을 거야

김은우 (큐브를 돌리며) 다 맞춰질 때까지

이하연 그래도 한 면은 맞췄네?

김은우 그럼 뭐해, 다른 면이 안 맞는데
이하연 줘봐 여기 면이 안 맞을 땐 이 공식을 써서 이렇게.. 자!

새로 맞춰진 면을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은우.

이하연 우리 혹시 몇 번 만났어?
김은우 일흔한 번?
이하연 일.. 일흔한 번..?
김은우 (웃으며) 음.. 아니, 마흔두 번!
이하연 아니 왜 말이 바뀌는데.. 어쨌든 많이 본 거 같긴 하네

하연의 머릿속에 도망치라는 은우의 목소리가 강하게 들려온다.

“넌 여기에 있으면 안 돼 도망쳐.. 도망치라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하연, 주저앉는다.

김은우 (놀란 듯) 왜 그래?! 괜찮아?
이하연 일단 빨리 나가자 여긴 너무 위험해

강의실 앞을 지나가다 가방을 두고 온 게 생각난 하연.

이하연 맞다 가방..!
김은우 잠시만..

S#17 교양 강의실 안 - 실내/밤

강의실로 들어간 하연이 가방을 잡으려는 순간.

김은우 안 돼!!

다시 처음 상황으로 돌아간다.

S#18 대학 캠퍼스 내 길거리 - 야외/밤

이하연 ... 어?

하연이 주저앉는다

서다혜(F) 여보세요? 하연아..? 하연아!
이하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주머니에 있는 사탕을 꺼내자 기억이 되살아난다.

(회상) 하연이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은우에게 건네준다.

이하연 이럴 줄 알았으면 친구 말 들을걸..

김은우 무슨 말?
이하연 이 시간에 혼자 학교 다녀올 바엔 과제 하나 버리는 게 낫다는 말
김은우 하연아
이하연 응?
김은우 집으로 돌아가
이하연 아 놀리는 거야 뭐야 그게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김은우 친구 말 들으라고 이곳에 들어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이하연 말이 쉽지.. 말했잖아 똑같이 모든 게 반복된다고
김은우 모든 게 반복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만나 대화하는 건? 절대적인 게 아
니잖아 나는 기억해, 그러니까 너도 지금을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발을 돌려, 절대 다시 돌아오면 안 돼 여기로

현실로 돌아와서,

이하연 다혜야.. 나 무서워..
서다혜(F) 이 시간에 혼자 학교 다녀올 바엔 과제 하나 버리는 게 낫긴 하지
이하연 그치.. 네 말이 맞아 나 돌아갈래
서다혜(F) 응..? 그 정도로 무서워?
이하연 응.. 무서워
서다혜(F) 그럴 거면 학교는 왜 간 거야 바보야
이하연 그러게..
서다혜(F) 너 괜찮아? 상태가 안 좋은데.. 일단 조심히 들어가고 내일 연락해
이하연 응..

전화를 끊고 일어나 발을 돌린다.

(회상) 은우가 하연에게 받은 사탕을 까서 입에 넣는다.

이하연 그래 네 말대로 기억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치자 그럼 너는?
김은우 흠.. 지금 내 걱정할 때냐? 나는 괜찮아
이하연 걱정한 거 아니거든?? 막 두고 갔다고 원망하지나 마라 진짜..
김은우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이 말이 떠오를 때 꼭! 돌아가야 돼 알았지?
그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현실로 돌아와서,

사탕을 바닥에 떨군 채 발을 학교로 다시 돌린다

S#19 3층 엘리베이터 앞 의자 - 실내/밤

하연이 은우를 찾아 말을 건다.

이하연 야, 김은우 다른 방법 없어? 너랑 같이 나갈 수 있는
김은우 너 설마 기억났는데 다시 돌아온 거야..? 하..
이하연 일단 카드 키부터 찾자 잠긴 문을 열어야 하니까
김은우 너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
이하연 아 진짜! 왜? 왜! 몰라 뭐가 됐든 나는 무조건 같이 나갈 거야
김은우 (피식 웃으며) 그래.. 못 말린다 정말

복도를 걸으며

김은우 너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
이하연 갑자기?
김은우 나는 밧줄 같아
이하연 왜?
김은우 매일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게 밧줄에 목을 매다는 것과 비슷해서
이하연 그게 뭐야.. 이상해 꼭 죽어본 사람처럼
김은우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이하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김은우 (하연 가방에 달린 키링을 보며) 키링 예쁘다
이하연 어..? 아까부터 자꾸 뜬금없는 말만 하네

하연의 머릿속에 도망치라는 은우의 목소리가 강하게 들려온다.

“도망쳐.. 도망치라고!!!”

이하연 으으.. 또야

카드 키를 찾았다.

이하연 어? 찾았다! 빨리 가자 은우야

S#20 학과 건물 1층 입구 앞 - 실내/밤

문 열리는 소리 철컥(E).

이하연 나와 얼른!

발을 멈추는 은우

김은우 도망쳐
이하연 그게 무슨 소리야? 빨리! 또 그 녀석이 쫓아오면 어떡해...!!
김은우 도망치라고!

이하연 왜 그러는데?! 같이 가자

은우가 하연의 목을 잡는다.

이하연 험..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치는 하연.

매번 입구에서 자신의 목을 조르던 게 은우였단 사실이 기억난다.

은우가 손에 힘을 빼자 하연이 주저앉는다.

이하연 어째서..? 그동안 나를 죽였던 게 너였어?

김은우 ... 도망치라 했잖아 어서 가

이하연 이해할 수 없어..

김은우 이해 못 하는 게 당연해

이하연 알려줘 왜 그러는지

김은우 나는 네가 제일 이해되지 않아..

지금까지 널 죽였고 방금도 죽이려고 했어 무섭지도 않아?

이하연 당연히 무섭지.. 기억이 드문드문 떠오르고 뒤죽박죽 섞여있어서
혼란스럽지만 너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

김은우 그렇게 궁금하다면 알려줄게 나는 네 가방에 달려 있는 키링과
똑같은 걸 달고 다니던 녀석 때문에 죽었어

이하연 (놀란 듯) 어..?

김은우 죽었다고 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하연 그게 무슨..

김은우 심한 괴롭힘을 매일 당했어 그걸 지켜보는 애들은 도와줄 기미조차 보이
지 않았지 오히려 뒤에서 조롱하며 즐기는 애들이 더 많았어 숨통이 조
여오다 더 이상 죽는 게 두렵지 않아졌을 때 난 스스로 밧줄에 목을 매
달았어 그 녀석들이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끼길 바라며 보란 듯이 학교
에서 죽어줬는데 결과는.. 오히려 장난감이 사라진 게 아쉽기라도 하듯
비아냥 거리는 게 전부였지 웃기지 않아?

이하연 아니, 잠시만

김은우 부모라는 작자도 아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관했지 내가 느꼈던 이
압박과 고통을 모두가 느끼길 바라서 나는 여기에 남았고 무한한 굴레를
만든 것도 내가 매일매일 지옥에 살았던 기분을 그대로 느끼게 하기 위
해서였던 거야

이하연 (은우를 끌어안으며) 거짓말이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저 누군
가 알아주길 바랐던 거야 그치?

김은우 하하.. 무슨 소리를..
이하연 얼마나 아팠을까..

눈물을 흘리는 은우.

이하연 정말로 사람을 해하고 싶었더라면 나한테 도망치라고 안 했을 거야
김은우 (안고 있는 하연을 밀어내며)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같잖은 위선이 날 더 화나게 만든다고!
이하연 맞아 나는 네가 누군지도 몰라 네가 느꼈던 아픔에 깊이는 헤아릴 수도
 없겠지 하지만 너도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유 없이 괴
 롭혔잖아 그럼 같잖은 위선일지라도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김은우 그게 무슨.. 하하.. 진짜 이해할 수 없어 나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솔
 직히 도망칠 줄 알았는데..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참 이상해 이상한
 사람이야
이하연 내가 그때 네 곁에 있었더라면 그 나쁜 놈들 다 혼내줬을 거야!
김은우 흠.. 무슨 수로?

하연이 은우를 다시 끌어안는다.

이하연 아 몰라! 암튼..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겠지만 고생했어.. 정말 많이
김은우 괴롭혀서 미안해 그리고 진심으로 고마워 넌 여전히 멋진 사람구나..
이하연 여전히..?
이하연 잠시만.. 그게 무슨 소리야! 야.. 김은우!

S#21 교양 강의실 안 - 실내/낮

큐브를 맞추고 있는 하연

이하연 아 왜 안 맞는 거야..!

모자와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은우가 하연에게 다가간다.

김은우 어.. 저기
이하연 네?
김은우 혹시 큐브 한 번만..
이하연 아.. 네
김은우 여기 면이 안 맞을 땐 이 공식을 써서 이렇게..

김은우(N) 너는 나와 다른 면이 너무 많았다.

맞춰지는 큐브

이하연 헐 대박!! 그 부분에서 계속 막혔었는데.. 감사합니다!!

김은우 아.. 아니에요

김은우(N) 너는 항상 밝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고

이하연 저는 하연이에요 이하연 혹시.. 이름이?

김은우 저.. 저는 진우.. 김진우요

김은우(N) 나는 음침하고 잘하는 거 하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이하연 엥.. 출석 부를 때 그런 이름이 있었나..?

서다혜 야! 이하연 뭐해~

**다혜가 하연에게 다가오자 황급히 자리를 뜨는 은우
맨 뒤에 있는 자리에 앉아 하연과 다혜를 지켜본다.**

*김은우(N) 친해지고 싶었지만
내가 다가가면 너도 괴로움을 당할까 무서워 멀리서 지켜만 봤다.*

가방에서 키링을 빼는 재욱, 그걸 하연에게 주면서,

서재욱 키링 예쁘다 했잖아요 여기

이하연 네? 달라는 말은 아니었는데..

서재욱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받아요

하연이 키링을 받고 자리를 피한다.

이하연 아.. 네, 저 먼저 가볼게요

박창식 오~ 서재욱 뭐야 이번에는 저기로 갈아타는 거야?

서재욱 그런 거 아니야

벽 뒤로 숨어서 지켜보던 은우, 재욱에게 걸린다.

서재욱 뭐야 찐우! 다 봤다 빨리 나와라

박창식 찐우가 뭐야

서재욱 찐따 은우 줄여서 찐우 고딩 때부터 내 짱친

박창식 와 작명 센스 개구려 너 대학 와서도 일찐 놀이하냐

은우가 걸어와 재욱 앞에 선다.

서재욱 음침한 새까 왜 엿보고 있어 너 설마 재 좋아하냐?

김은우 어? 아.. 아니..

서재욱 꼴에 남자라고 후기 알려줄게 딱 기다려

눈을 부릅뜨며 주먹이 흔들리는 은우.

서재욱 야 눈에 힘 빼라 그러다 한 대 치겠다? 아니다 형이 넓은 아량으로
한 번 봐줄게 대신 PC방 가게 내 계좌로 5만 원만 보내놔
확인했는데 없으면 그땐 진짜 뒤지는 거야

재욱과 창식은 은우를 밀치며 유유히 사라진다.

박창식 무슨 PC방 가는데 5만 원이나 필요해 진짜 개 양아치다

서재욱 뭐래 밥은 안 먹냐

박창식 하긴.. 먹을 건 못 참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서 멍 때리는 은우에게 하연이 다가온다.

이하연 진우 씨? 괜찮아요..? 혹시 저 사람들이 괴롭힌 건 아니죠..?

김은우 아니에요..

*김은우(N) 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매일 생각하며 변하고자 했고
너에게 맞는 사람이 될 때 다가가고 싶었다.*

S#22 학과 건물 1층 입구 앞 - 실내/밤

*김은우(N) 변할 수 있는 공식,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저 용기 그뿐이었구나*

김은우 다음 생이란 게 존재한다면.. 그땐.. 그때는 나랑 친구.. 해줄래?

이하연 (눈물을 흘리며) 무슨 당연한 소릴.. 이미 우린 친구잖아!

은우는 환하게 웃으며 완전히 소멸되고,

완성된 큐브가 떨어진다.

END.